

서부발전, 천연가스발전소 착공 “연간 20만 가구에 전력수요 충당”

공주서 석탄발전 대체 사업

이정복 사장 “에너지전환 정책 부응”
건설기간 중 일자리 15만개 창출
주변 지역 주민 발전지원금 지급

한국서부발전이 구미에 이어 공주에서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착수하며 ‘석탄 → 액화천연가스(LNG)’로의 에너지 전환 사업을 본격화한다.

발전소 인근 지역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충당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일 충남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서 ‘공주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주천연가스발전소는 남공주일반산업단지 10만3000㎡ 부지에 건설되는 500MW(메가와트)급 발전소로 태안 발전본부 2호기를 대체하게 된다. 약 6812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 4월 준공 목표다. 설비규모는 연간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공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1년 12월 발전사업허가 취득, 2022년 11월 주민설명회, 지난해 2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추진됐다.

공주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증가 세로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공주천연가스발전소가 생산할 전력은 공주에 우선 공급되고, 일부는 대전·충청 전력수요를 충당한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지난 2일 충남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공주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서부발전

건설 기간 중 일자리 15만개가 만들어지고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한 발전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발전소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공주천연가스발전소는 산업, 농공단지 지역을 활성화할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부발전과 협업해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지역과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부발전은 건설 기간 중 환경·안전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이미 가스터빈 시운전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 농도를 충남 최저 수준인 4ppm(피피엠) 이하로 떨어뜨린 최적 연소점을 도출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현장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각종 안전 관련 서류를 전산화하는 등 최첨단 지능형안전 기술을 적용한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공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남을 대표하는 역사 도시인 공주 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의 미래를 뒷받침할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발전은 태안발전본부가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 10기 중 6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태안 화력발전 1호기를 대체할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이은 서부발전의 두번째 석탄화력발전 대체 사업이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5산단)에 501.4MW 규모로 건설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나무의사’ 꿈꾸는 중장년층 늘어나

산업인력공단, 산림 등 취득자 현황
5년 새 44% 증가, 50대 이상 절반

산림·식물보호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는 50대 이상 응시자와 자격 취득자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재직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 및 식물보호 분야 6개 종목’ 국가기술자격 응시·취득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대상 자격은 산림분야는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4개, 식물보호 분야는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2개다.

분석 결과 산림 및 식물보호 분야 자격 응시인원 2019년 1만6817명에서 2024년 2만6817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4%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자격 취득자도 5599명에서 8084명으로 연평균 6.2% 늘었다.

이는 최근 산림보호 관련 법령의 개

정, 산림청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산림사업 증가, 도시조경 및 반려 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나무병원 및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돼 나무의사가 아니면 수목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종사자나 예비종사자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설문조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격 취득자의 55.9%는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식물보호기사를 제외한 모든 등급 자격에서 5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응시 당시 경제활동 상태 또한 재직자(임금근로자)가 많았다. 응시 목적은 취업 43% 및 자기개발이 25.8%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산림 및 식물보호 분야 자격은 50대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목적으로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日 투자자에 ‘한국 국채 매력’ 알렸다

기재부, 일본 도쿄서 ‘국가 설명회’

기획재정부는 최중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최근 일본 도쿄를 찾아 이른바 ‘국가 설명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최 대사는 현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 등을 소개했다.

이 같은 행보는 오는 11월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실제 편입을 앞두고, 일본 투자자들에게 한국 국채 시장의 안정성 및 투자 매력도를 알리는 일종의 홍보 활동이다. 세계국채지수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선진채권지수이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종자금이 2조5000억 달러(3663조 원)에 달한다.

최 대사는 세계 최대규모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 총운용책임자(C

IO)와 면담을 갖고 ▲국채 비과세 절차 간소화 ▲국채통합계좌 도입 ▲외환거래 시간 연장 등 국채 투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설명했다.

GPIF 측은 “한국 정부의 외환·자본 시장 제도 개선 속도와 범위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런 제도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투자자들의 제도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 대사는 또 미쓰비시 UFJ 자산운용 대표 및 레조나 자산운용 CIO 등 주요 투자자들과도 만나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국채 투자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일본 투자자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국 국채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푸드+, 매운맛 열풍에 수출 실적 ‘굉충’

농식품부, 1분기 수출액 최고치 경신
라면·소스 인기로 31.8억달러 달성
농약·비료 등 농산업 전반 수출 증가

올해 1분기 농식품에 더해 전후방 산업까지 아우르는 ‘K-푸드+’ 수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가공식품의 인기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1억 달러 넘는 수출 실적을 낸 품목 중 라면 등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분기 K-푸드+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31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K-푸드+는 농식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다.

농식품의 경우, 전년보다 9.6% 증가한 24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를 재차 경신했다. 특히 권역 중에서는 서아시아 산유국 6개국 모임인 걸프협력회의(GCC)에서 37% 늘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어 영국+유럽연합(EU)은 34%, 북미는 21%, 몽골을 포함한 독립국가연합(CIS)은 15% 증가했다.



한국 및 현지 조리장들이 지난해 10월 초 이탈리아에서 김치 스파게티·삼계 리조토 등 ‘퓨전 K-푸드’를 선보이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라면 수출액은 27.3% 증가한 3억 4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매운맛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면서 중국, 미국에 더해 아세안, EU 등 전세계에서 수출이 늘었다.

소스류도 전년보다 9.1% 증가한 1억 1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는데, 고추장·된장 등 전통 장류와 더불어 ‘까르보날다’, ‘불닭마요’ 등의 매운맛 소스와 한국식 치킨 양념 소스 등이 수출을 견인했다.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한 신선식품 중에서는 포도와 닭고기의 증가세가 컸다. 닭고기는 전년보다 14.1% 증가한 267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산란

노계를 선호하는 베트남이 최대 수출국인데, 타국산과의 경쟁에서도 13.0% 늘어나는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에서는 삼계탕이 가정간편식(HMR) 제품으로 현지 유통매장에 입점돼 수출이 늘었다. 수출 2년차인 유럽에서도 전년도 수출 실적을 넘어섰다.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가 수출 상위 품목을 차지한 농산업의 1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2.3% 증가한 7억 달러다.

동물용의약품은 2월 말까지 증가율이 무려 60.8%에 달했다. 두 달간 664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농약은 올해 33.7% 성장한 2억 1220만 달러를 수출했다. 중국·브라질·베트남 시장에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종자는 중국 등에서 수요가 늘면서 전년보다 49.1% 증가한 1260만 달러, 비료는 동남아에서 고품질 마케팅 강화에 힘입어 16.9% 증가한 1만 1640만 달러를 수출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1분기 K-푸드+ 수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이유는 민관이 ‘수출 원팀’이 돼 각국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식품산업, 글로벌 판로 확대 나선다

aT, 9개국 박람회 참가기업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5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이달 14일까지 받는다.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식품 관련 박람회는 오는 ▲8월 필리핀 마닐라 워펙스(WOFEX) ▲9월 호주 시드니 파인푸드(FFA)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알(SIAL) 등 총 9개다.

정부와 aT는 다양한 K-푸드를 현지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통합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가기업의 신규 바이어 발굴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통합한국관 부스 배정과 기본 장치 ▲전시 샘플 운송·통관비 ▲사전 연결이 성사된 현지

바이어와의 오프라인 상담회 등을 지원해 박람회 참가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국내 농림축산식품 생산·수출기업이다. 신청 방법 및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aT의 국제식품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의 홍보표 사장은 지난달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5 도쿄 국제식품박람회’를 찾아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홍 사장은 일본에 진출한 한국 주요 수출기업 현지법인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또 K-푸드 유통 동향과 업계 애로를 파악하고 향후 수출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